

선유도에 흰발농게 대규모 서식

군산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약 60만개체 확인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 배후부지 일원에 서식 중인 흰발농게(별종위기 II급)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열린 용역 보고회에는 선유도 주민대표 및 환경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를 통해 군산시는 그동안 선유도 일원에 서식중인 흰발농게에 대한 분포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해당지역은 흰발농게의 서식조건이 양호해 대규모(약 60만개체)의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현재 선유도 지역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연간 수백만명이 찾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흰발농게의 서식지역은 차량과 방문객들의 빈번한 통행으로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상태로 파도에 침식으로 매년 3~6cm가 지속적으로 퇴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0년 이내에 흰발농게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으로 판단돼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흰발농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말 도사방문객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방안으로 서식지의 현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안선의 정리를 위한 적정매립 범위를 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매립면허 취득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흰발농게의 자연 이주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등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흰발농게 서식지 조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흰발농게에 대한 생태적 가치에 대해 주민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보호구역 지정 등의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 해 나갈 방침이다.

향만해양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및 환경단체와 상호 소통해 선유도 일원 배후부지 일원에 서식 중인 흰발농게가 고군산의 훌륭한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민간체육회장후보 4파전 예상

박효성·조장희·정성길·황권익 등 거론

익산시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두 달 남지 다가오는 상황에 강한 저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4파전이 예상되는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할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민간체육회장은 4년 임기이나 전 체육회장 잔여임기인 약 2년 6개월정도 익산시체육회를 위해서 무보수 헌신봉사하는 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민간체육회장 선출근거는 다름 아닌 지자체장, 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오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근거에 의해 선거를 치룬다.

익산시체육회 후보군의 경력을 보면, 박효성(전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조장희(현 익산시체육회 부회장), 정성길(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40대 총재), 황권익(전 익산시테니스협회회장)등 막강한 분들이 좌천타천 거론되면서 4파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누가 선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체육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말 할 정도이며 2019년 11월 15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선거 60일전) 선거운동기간이고 선거운동기간 금품살포가 금지되며 선거인단은 150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출마후보자는 체육회 임원 및 체육회 관련종사자 모두 선거 개시일 60일전에 시작 후 출마해야 하고 2020년 1월 15일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 되면 동년 01월16일에 취임하고 전 익산시체육회 임원 및 사무국장 등은 2020년 01월16일자로 임기종료가 되면서 신임 민간체육회장이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하게 되었는데 과연 신임 사무국장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7~15인 이내로 구성' 및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 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농업실용화재단, 지역발전 협력사업 추진

6대 협력사업 발굴·추진 합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익산시와 농업실용화재단이 협력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익산시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춘석 의원이 공동으로 실용화재단에서 '사회기치구현을 위한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철웅 재단이사는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부터 양 기관 실무진이 수차례 논의 끝에 발굴한 6대 협력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협력에 합의했다.

논의된 6대 협력 사업은 ▲익산시민 대상 시설물 공유 개방 ▲창업희망 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우수 신제품)보급종 채종단지 조성 ▲농식품 특성화단지 조성 ▲농기자재 전문 유통단지 조성 ▲상생 협력사업 공동 연구용역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익산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창업지원 확대는 물론 종자재배 기술 향상 등이 기대되며 2020년 신규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가칭 'FACT-IS

Project')을 진행하는 등 토론회 이후에도 농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사회기치실현단장의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운영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과 신성룡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원도현 원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실시됐다.

이어 이현 신현대 사회기치추진단장을 좌장으로 지자체와 전문가, 기업,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회가 진행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달달한 청춘 로맨스'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모집

군산시는 지역 내 미혼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산 달달한 청춘 로맨스' 행사를 개최한다.

30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으로 연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미혼남녀들에게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친목을 도모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추진한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KBS2 '개그콘서트'에서 안어범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안상태를 전문 진행자로 섭외하며 다채로운 커플 게임 및 대화시간으로 설레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군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79년생부터 92년생의 미혼 남녀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8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063-454-232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제16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성황리 폐막

지난달 25일 익산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3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안원의 막을 내렸다.

익산시는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하는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막 당일인 3일까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총 71만명

으로 지난해보다 7만명이 증가해 매년 발전하고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특별전시장 유료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농·특산물 판매부스 확대는 농가 소득증대에 기대 이상으로 기여하면서 생산적인 축제로 치러졌다는 평가다.

또한 단순 전시방식에서 탈피한 스토리텔링 포토존 확대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꿈과 사랑의 나라로 떠나는 국화 여행'이라는 주제로 만든 다양한 조형물과 포토존, 특별 사랑고백 이벤트는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모두를 인생 최고의 사랑여행으로 떠나게 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군산시, 더불어 쾌적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 간담회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는 주민불안감 해소,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시연 및 활용방안과 관련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근대역사박물관 2층 회의실에서 전북 안전사회 환경모임 공동대표(조성욱)와 시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에서 제작하고 있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 관리 지도의

시연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지도에는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정보, 취급하는 화학물질, 대피소, 병원, 대피경로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지도를 활용,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피 및 피해자의 빠른 처치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환경친화도시 조성 추진단' 가동

익산시는 지난 1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서장을 단장으로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3일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대기·수질과 자연환경팀, 시민참여팀 등 5팀으로 구성됐으며, 환경관련 조직 개편과 인력보

강을 통한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환경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환경친화도시 현장 및 환경친화도시 선포 등을 추진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팀의 경우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단체를 모집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확대시키는 등 민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방침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